

# 주안예교회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0  
Oct. 2019  
Vol.7 No.9

- 새가족 주안예만남
- EM 예배 간증
- 청년부 / 교육부 소식
- 칼럼 / 간증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f](#) [ig](#)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9월 21일 제4회 주안예놀러와 운동회가 열렸다. 온 힘을 다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여자부 선수들. (사진: 양영 기자)

## ‘영차, 영차’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 ■ 제4회 주안예놀러와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던 9월 21일 토요일 Pasadena Brookside Park 에서는 주안예교회 에서 마련한 신명나는 운동회, 가족과 함께하는 전교인의 놀이 한마당이 열렸다.

아침 7시부터 행사 준비를 위한 진행팀들이 도착을해서 어느 한가지도 불편함 없이 세심하게 챙겨가며 마련한 “주안예 놀러와” 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나들이를 즐기러 나온 꼬마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청팀 홍팀을 외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양쪽채플 권사회에서는 푸짐한 점심을 정성껏 준비를 해주셔서 가벼운 차림으로 참석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고, 또한 행사장 구석구석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풍성한 과일까지 마련되어서 누구든지 부담없이 하루를 놀다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된 행사였다.

새가족으로 아직은 모든게 서먹했던 분들이나, 특별한 교제가 없었던 교인들끼리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서로가 주안예교회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배웠던 2019년의 “주안예놀러와” 는 또 한 페이지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

(관계화보: 6-7면) | 오희경 기자 |



■ 신입권사 환영회

지난 9월 7일 토요일 벨리체플(MP체플 9월 8일) 에서 주안예교회 신입 시무권사 환영회가 있었다. 기존 권사들과 신입 권사들이 함께한 환영

회를 위하여, 선배 권사님들께서 아침식사와 다과, 과일 등을 준비함으로 권사의 본을 손수 보여 주셨다. 최희복 목사님이 신입 권사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기분을 다 하라" 하는 부탁 말씀으로서, 기분만 다하여도 멋진 권사님이 될

수 있으며, 선배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본을 보이는 것이 선배로서 기본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며, 모든 권사님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며 모두 감동하였고 긴 여운이 남는 모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 신입안수집사 환영회

9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MP체플(벨리체플 9월 14일) 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마련한 신입 안수집사 환영회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이 임직을 받으신 신입 안수집사를 환영함과 동시에 앞으로 안수집사회에서 감당해야할 구체적인 사역들을 안내하고 그 방법을 의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기존 안수집사들과 신입 안수집사들이 대부분 부부동반으로 40여명 가까이 참석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면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교회의 기동과도 같은 안수집사회가 더욱



헌신하고 더욱 모범이 되기를 시무장로들과 선배 안수집사님들이 권면하고 다짐하

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 오희경 기자 |

■ 축하합니다

이광영 안수집사, 임혜신 권사(MP) 장남 이인규 성도가 지난 9월 1일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후학 양성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하고 축하합니다.



■ 감사편지를~

감사편지함이 편지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 사랑을 베풀어준 주안에 교우들, 목장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카드에 담아 우체통(체플별 분당 입구에 마련)에 넣어주시면 즉시 배달합니다. 편지를 받은 분들은 또다른 분들께 감사의 글을 릴레이로 보내주세요.



■ 벨리채플 주안에만남



벨리채플 주안에만남에 참석한 새가족들(왼쪽부터 서영미 집사, 조영옥 집사, 김연실 집사, 임선희 집사, 김옥진 집사, 송옥주 집사, 한영자 권사)

## ‘은혜의 말씀,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새 출발점’

9월 26일 저녁에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서는 새가족을 맞이하는 주안에 만남이 있었다. 일곱분의 주인공들을 위하여 새신자국에서 마련한 맛있는 저녁 식사로는 스테이크와 양송이 스프, 샐러드, 과일, 이탈리아 소다 등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식사 후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목사님 자신의 소개와 함께, 새신자들 각자의 소개의 시간이 있었다. 이어 담임목사의 교회 비전 및 목회철학과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줌으로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됨과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질의문답 시간에는 몇몇 분의 질문에 목사님의 진솔한 답변이 있었다.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주안에만남" 으로 기억될 것이다. | 임용자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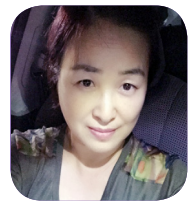
### ■ 새가족 소감 한마디 .....

**조영옥 집사:** 저는 스테이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스테이크 정찬을 해 주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안예교회는 안 다니고 배드민턴만 치고 있는 것이 미안하던 중에 동생이 CD를 주어서 들어보니, 최혁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자 권사:** 미국 온지 35년 동안 열심히 살다 작년에 남편이 소천하고 주안예라이프를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은 주안예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설교에 매료되었고 이 나이에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설교는 처음이라서 큰 복을 받게 된 것이 너무 너무 기쁩니다.

**서영미 집사:**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음식으로 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은혜 한인교회 평신도로서 선교사 공부를 끝마친 후 중국으로 파송되어 인생을 끝마치셨고, 혼자가된 어머니는 한 번에 녹두부침을 천장식 만드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시며 재료를 구입하셨습니다. 며칠이고 만들어 열 두 장씩 열려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께 밥맛이 없을 때 드시라고 보내드리는 모습을 보며 성장한 저 역시 사랑의 표현을 할 때는 항상 음식으로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주안예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 '6년의 기다림 끝에...'



살롬! 사랑이 많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저를 이곳 주안예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9년을 교인이 적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주안예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최혁 목사님의 설교 CD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생활의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고 그동안 잘못 알았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나 언젠가는 꼭 최혁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6년전 벨리에 주안예교회가 창립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고 싶었지만 섬기던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안예교회에 불러주셔서 지금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40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길 원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안예교회 양육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의 주옥같은 설교, 강해 말씀을 통하여 정말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 김연실 집사 |

■ 코람데오 소식

**■ 볼링 통해 목원들 친교 다져** 9월달의 첫 날이었던 지난 9월 1일 주일, 2부 예배 후 Alhambra에 위치한 Golden Mile Bowling에서 볼링 아우팅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피자와 9월달 생일자 축하와 함께 아우팅을 시작하였다. 목장별로 팀을 나눠서 총 두판에 걸쳐서 볼링을 하였고, 청년들은 서로 응원도 하며 새로 만난 목원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국장으로 임명된 이방걸 장로, 이해령 권사와 오찬국 집사, 오희경 권사도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응원도 해주시며 덕분에 더욱 더 풍성한 시간을 보내었다.



**■ 4개 목장체제로 전환** 코람데오 청년부가 새로운 목장 개편을 통해서 총 네 개의 목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목장에서 목장 이름을 정하였고, 주안에 ONE, 주안에 너 있다, 주안에 천국, 그리고 주안에 바나바로 결정되었다. 총 4명의 목자와 6명의 작은 목자로 이루어졌으며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새로 개편되는 날만큼 리더들이 청년부실을 다 같이 꾸미고 맛있는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였다.



**■ 주안에놀러와 커피 봉사** 이번 주안에 놀러와에서 코람데오는 음료 500인분을 담당하였다. 운동회 며칠전부터 모여서 아이스 커피, 믹스 커피, 그리고 레모네이드를 만들 재료를 사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안에 놀러와를 준비하였다. 많은 성도분들이 청년부 부스에 오셔서 운동 후 갈증을 시원한 커피로 해소하였다.



**■ 민에스터 권사 봉사에 감사** 지금까지 코람데오 청년부에서 앞에서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 해주신 민에스터 권사님께서 영커플로 가셨습니다. 청년들을 친 딸, 친 아들 처럼 가져주시고 예뻐해주신 권사님께 코람데오에서 작은 마음을 담아 롤링페이퍼를 케이크와 꽃과 함께 서프라이즈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코람데오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양하민 기자 |



## 젊은 부부들 목장 통해 말쑼과 삶을 나눈다

지금까지는 장년들과 함께 목장에 소속되어있던 영커플이 9월 부터 자체 목장제도를 시작했다.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있다가 결혼과 함께 가정을 이룬 커플들끼리의 모임을 따로 구성을해서 영커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은 모두 3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두 목장으로 나누어서 시작을 했다.

아직은 아이가 없는 커플들도 있지만 점점 아이가 태어날 가정이 늘어갈 형편이기에 서로가 올바른 신앙안에서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도 나누고 공유하며, 또한 목장안에서의 나눔도, 아이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엄마와 아빠가 교

대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을 택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도 그시간 만큼은 엄마의 개입이 없이 온전히 아이와 돌만의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게 마련된 제도이다.

거의가 이민 1세대인 부모님과 벌써 3세대가 되어버린 아이들 사이에서 능숙하게 이중언어를 구사하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좁힐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영커플 목장이야말로 우리의 든든한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그룹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속에서 그들을 협조하고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야 하겠다. | 오희경 기자 |

■ Movie Review/

'My Annoying Brother(형)'

*'...brothers learn to rely on each other'*

Sometimes the person who hurts us the most is closest to us like a family member. In this Korean movie, the blinded brother resents his older brother because of their rough history.

As the story unfolds, the brothers misunderstand each other for many years as they think they are righteous. After tragedy strikes both of them, the brothers learn to rely on each other and become a comforting support.



I think we can relate their story in their lives. But for those who still have issues with loved ones, remember that Christ accepts us unconditionally regardless of our shortcomings.

Now, can we show the same love to others especially those who are supposed to be dearest to us? Watch the movie on Amazon prime and share your thoughts with me.

| Simon Cho 기자 |

■ 사진으로 보는 주안에놀러와



‘호떡집에 불났어요’ 먹거리장터 인기만점



‘끌려갈 수는 없어, 져먹던 힘까지.....!’ ‘넘어져도 삼겹줄은 놓을 수 없어’



‘빨리 터져다오’



‘나 지금 웃고 있는거야’



‘머리털까지 우린 청팀’

■ 사진으로 보는 주안에놀러와



‘할렐루야’ ‘예수승리’ 뜨거운 청-홍팀 응원열기



〈사진 - 양영, 이광영, 최जू디, 김진흥〉

■ 장수시대 재정설계

종신연금(Annuity)

기네스 기록상 현존 세계 최고령자는 일본의 다나카 카네(116세) 할머니입니다. 그녀가 환갑이었던 1963년 당시 일본 6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18.5세였습니다. 기대여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은 죽기 전에 노후자산이 먼저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후자산을 인출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의 수명을 나의 수명에 맞추는 것입니다. 종신휘연금(Annuity)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에게겐 정부가 종신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2018년 은퇴자 월 평균 수령 금:1404달러) 또 경우에 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추가적인 종신휘연금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은퇴자의 금융자산 중 연금 비중은 6%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2014년 LIMRA(생명보험 마케팅조사 협회) 설문조사는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보험회사에 대한 우려, 지출제약 등의 이유로 종신휘연금(Annuity) 가입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수시대임을 생각한다면 단점 때문에 종신휘연금(Annuity)을 멀리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종신휘연금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종신휘연금의 비용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종신휘연금 상품의 용도가 나한테 꼭 맞는지 확인, payment option 선택에 신중히, 회사별 지급금액비교,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등을 꼼꼼히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민유선 집사  
(재정전문가)

■ 사역/ 이성우 전도사

하나님 나라 좋은 군사로 키우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 부터 MP채플 ICKidz를 맡아 섬기게 된 이성우 전도사입니다.

올해 VBS를 도우면서, VBS를 맡아 준비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함이었는지, 그후 몇달이 지나 실제 ICKidz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음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필리핀에서 살았고 많은 때에 부모님과 그 당시 선교사님을 쫓아서 개척현장에서 자연속에서 놀던 기억이 더 많은 저에게는 아이들 사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될 것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걱정이

가슴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가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집 책꽂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어려워지만 무시할 영혼이 아니며 충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나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체험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학부모님과 교회가 함께 한팀이 되어서 양육해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함께 이뤄나갈 Teamwork을 기대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와 학부모 한 팀이 되어 나아가야”

9월 29일 2부 예배후 MP 임시에배처소 키즈룸이 시끌벅적하다. IC KIDZ PSG(학부모모임)으로 20명 가까이 모인 부모들과 키즈 총무부, 새로 사역을 맡으신 이성우 전도사가 함께 소통을 하는 자리.

10월달 설교주제, 10월 안송구절에 대해 설명 하며 아이들이 성경책을 꼭~지참하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부탁했다. 다음주 10월 6일 한국의날 행사와 10월 31일 '할렐루야 Night'에 대한 계획들도 나누었다.

특히 학부모들의 참여를 얘기 하며, 아이들에 대한 양육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이 중

요한 만큼 PSG(학부모 모임) 만큼 중요한 모임이 없으며, 교회+학부모=한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0월말 '할렐루야Night'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만이 아닌, 이웃과 친구, 사회로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위해 그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같이 '초청장'을 만들어 초대하고, 그날 만큼은 세상의 할로윈Day가 아닌 진정한 '할렐루야~Night'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이성우 전도사가 처음으로 주관한 이날 PSG미팅은 부모들의 큰 호응으로 더욱 의미가 있었다.

| 이성은 기자 |



## 한복 입고 땀기 달고 추석 송편 만들었어요

■ 한글학교

9월 15일 주일 날에

한글 학교에서는 팔월 한가위 추석 행사를 가졌다.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땀은 머리에 땀기를 달았으며, 추석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하루였다.

장은경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해 온 송편 재료로 색색의 송편을 빚어 추석의 의미를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는 열성도 대단하였으며, 특히 중급반 학생 전원이 차례로 나와 추석의 역사와 배경등을 영어로 설명하므로서 영어권 학생들이 추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추석 명절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두들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추석 명절이 되었다고 한다. | 임용자 기자 |



## 함께 숙제하고 운동, 고교생들 봉사 기다려

■ 카리스 새학기 시작

2019년 가을학기 시작되면서

주안예교회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카리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주간 진행하며 대상은 1학년부부터 8학년까지 학생으로 매주 토요일 빨리 채플에서 진행된다.

카리스에서 학교 숙제, 운동, 미술클래스, 팀워크 트레이닝 등으로 나누어 지도하고 있으며 봉사를 하고 싶은 고등학생들은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임용자 기자 |



## 주말밤 비치캠프파이어... 찬양이 곱게 곱게

■ ICY 금요아우팅(MP)

MP채플 ICY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예배 모임을 OUTING 행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금요일에는 "Dockweiler Beach" 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EM 청년들을 함께 초대하여 대략 25명의 학생들이 해변가의 캠프 파이어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재밌는 게임의 시간을 갖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아우팅 모임을 기대합니다. | 이성은 기자 |



■ EM & 중고등부 부모들과 함께 주일예배



백리채플 EM ICY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양영 기자>

*'truely eye opening exprience'*



**Sarah Kim:** Service began and it felt welcoming and not at all unfamiliar. When the pastor began his sermon, there was an amicable atmosphere. And when he asked questions requiring an answer from the audience, it was engaging of some sort. From the stories he told to the actual moral lesson of the sermon, it was all agreeable and something I could very much relate to.



**Eric Lee:** Attending the KM service instead the regular ICY service was something different. At first, I wasn't the biggest fan of attending KM service. I thought that the adults and children had different necessities and therefore required different sermons. But as I kept on listening to P Choi's sermon, I was really blessed and I learned a lot through the Love Series. I was expecting some like dating advice or something like that but it taught me a lot about what it means to love my friends and families and other children of God. So yeah, overall I just thought this was a great blessing for a lot of the ICY members.



**Eunbi Kang:** When I first heard that ICY will be joining the main service for the Love Series, I was beyond excited. I had heard Pastor Choi's sermons even before coming to ICCC, and I was thankful to be invited to learn about basic Christian ideals, such as love, from someone who knows what they're talking about. Pastor Choi's messages are easy to understand, especially because they are story-based. He provides multiple examples for each point in his sermon and uses repetition to provide emphasis. It's a truly eye-opening experience because he introduces passages from the Bible that everyone has heard before, but uses it to reveal a new facet of God's love. Every Sunday, I look forward to

hearing about a new revelation. His message is equally important to students as to adults, and it is great that we are learning how to love others starting from an early age. I pray that this series will help everyone grow in God and that they'll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reat love we receive from Him every day.



**Samuel Cho:** Listening to PChoi's sermons these past few weeks has been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I think that when you listen to a sermon, you shouldn't leave what you learn at church, but try your best to take what you've learned and somehow implement that into your life. I think that the Love Serie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it gives us an example of what kind of mindset we should have when living our day to day life. I think the sermons have helped me realign myself with God, through ideas like seeing not what people are doing, but what they will be doing for God's kingdom in the future and not judging someone until you've lived in their shoes for two months have really helped me have a more loving heart. Throughout my weeks I've been trying to integrate what I've learned from these sermons into my life and have been praying for the strength to do so. These sermons have been themed the Love series and rightfully so, they have helped me more deeply understand what love is and how to be more loving. I really appreciate PChoi preparing these sermons for us and hope everybody else got as much out of it as I did!



**Justin Ma:** The Korean Ministry service had an interesting topics about love. Love is a really difficult and common category to share, but love can mean any things. The community is what let's us share and give opinions about our own feelings and opinions about what we feel with the lord. The feeling of worshiping and singing with God feels like the best for me.

■ EM & 중고등부 부모들과 함께 주일예배



MP채플 EM ICY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다. <최호기 기자>

*'wonderful sermon, great blessing'*



**Jane Ma:** At first I was worried about joining KM worship service due to the language barrier, but it was actually a very nice experience. I enjoyed worshipping in both Korean and English. Above all else, I thoroughly enjoyed Pastor Choi's sermons. I learned a lot about love and how to love others as a child of God.



**Matthew Yang:** When I was first told that EM would be joining worship services with KM I was very skeptical and in doubt that it would not benefit our ministry in any way. I thought the language barrier would be a huge problem and I felt like I would never be able to fully understand the sermons,

but as I started to worship and sing praises together with the rest of my church I was blessed to see so many people passionate and on fire for God. Also, because of Ma Jsn's wonderful translation I was so thankful to finally be able to understand our head pastor's wonderful sermons. Listening to the Love Series helped me learn how to love my fellow church members according to God's word and it made me rethink how I should be handling the relationships I have so that I may be bonded with them in faith and not worldly desires. I hope as we continue to worship together that everyone else in my ministry will continue to receive more blessings listening to Pastor Choi's sermons.



**Katie Lee:** I had a really great experience when I joined the KM worship service. P. Choi's sermons helped me realize that I needed to put myself in other people's shoes and think about their opinions. Until now, I have never realized that I should think about what other people are going through,

before I judge them. I also enjoyed singing the KM songs. Even though these songs are mostly in Korean, I felt like I still experienced God's love through the songs.

'마음에 닿은 사랑의 메시지'

**박민호:** 어른분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주제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사랑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랑에는 '거리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거리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설교를 듣다가 빌레몬서 1:8을 말씀하실 때 바울이 낮은 자세로 빌레몬을 존중히 여기는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또 가까울수록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Jane Lee:** Joining with KM service was a very interesting and fun experience. I was able to learn more about God through Pastor Choi's sermon and receive different kinds of blessings through praise. I think the Love series really helped ICY get closer to KM, despite our culture and generation differences.

Although the Love series is coming to an end, I can't wait to have more joint services with KM in the future!

■ 북가주에서 온 편지

"브릿지캠프의 은혜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최혁 목사님 그리고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 샬롬! 우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저는 몬트레이 영락교회 서리집사인 정광자입니다. 전부터 최 목사님의 CD를 듣고 있었고, 또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참가한 후 최혁 목사님의 왕 팬이 되어 버린 사람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 서신을 통해 "북가주 브릿지 캠프" 라는 천국잔치를 열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8월 9일 부터 10일까지 이틀동안 기대 이상의 많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싶어 줄필이나마 글을 올립니다.

고국에서 유아시절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 왔던 저는, 이곳 미국에 온후에도 35년이 넘도록 신앙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캠프에서 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왔다고는 확신할 수 없음을 회개하고, 또 진정한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자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 탓으로 시계처럼 한국 이민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다가 또 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교회에서 20년을 섬겼고 다시 또 이민교회를 섬기게 된 저는, 그동안 바쁜 삶의 일정으로 지쳐서 소멸되어가는 영혼문제를 붙들고 주님께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참가하게된 브릿지 캠프는 제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을 선물해 주셨고,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기뻐고 은혜로웠습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신 최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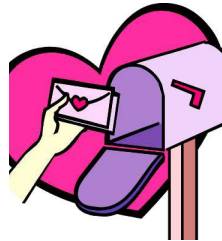
사랑과 친절함으로 손수 주님의 편지가 되어 봉사로 섬겨주신 주안예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의 섬김등은 오랫동안 갈급해 있었던 저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는 은혜의 소나비였습니다. 나태해져가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께서서는 브릿지 캠프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재 충전시켜주시고 활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소생시켜 주신 은혜의 캠프였습니다.

이제 제 기도제목의 목록에는 최혁 목사님의 건강과 주안예교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울러 주안예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십자군으로 진리의 횃불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필라델피아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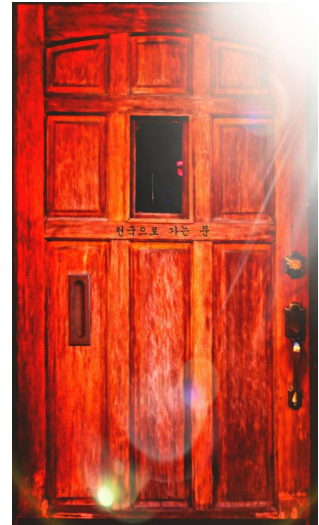
그래서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저같은 영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이러한 천국잔치를 베푸시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바램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특별헌금을 보냅니다. 직장에 매여사는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가끔적이면 북가주에서 힐링캠프를 여신다면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휴가를 적립해 놓겠습니다.

저는 이곳 국방외국어대학에서 행정일을 하는 사람이니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최혁 목사님과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정광자(Kelly Neff) 올림



■ 포토 에세이



저 문 뒤에는 누가...

어느날 길을 가다 내 눈길을 끄는 한 문을 보았다. 마침 카메라가 옆에 있어서 사진을 한장 찍었다. 난 이 문을 보면서 생각했다.

천국에 가려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좁은 문("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24)을 통해서만...

이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일 지금 당장 이 문이 열리면 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님 망설일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 최호기 기자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10:00, 2부 오후 1:00

주중 예배

수요일예배/ 저녁 7:45 MP채플  
금요일예배/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후 1:30, MP채플/ 주일 오전 10: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후 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임시예배처소 MP Chapel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안에" 2019년 1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 입니다. 목장,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중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나형철, 민우선, 박경숙, 양하민, 이성은, 이예스터, 임용자, 임종구, 조 사이먼, 조용대(기자)

양영, 최호기(사진) 편집디자인: 김윤영

2019년부터는 주안예신문이 매달 초에 미리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